<화학산업의 의식변혁을 추구하며 …>

고비용 저효율의 대응방향

한국 경제계가 '고비용 저효율'를 이슈로 내걸면서 고비용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임금을 동결하거나 인원감축을 통해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나서 온나라가 떠들썩하다.

전경련이나 경영자총협회를 중심으로 불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 개선작업은 일부에서 임금총액을 동결함으로써 더 이상의 고비용 구조를 허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에서는 대폭적인 인원감축을 통해 근원을 치료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특히, 선경인더스트리가 최고 60개월분의 임금을 추가 지불하면서까지 전사원의 1/3에 달하는 820명을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감원하겠다고 나서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선경인더스트리의 대폭적인 감원은 그동안 수출을 주도해왔던 섬유산업의 불황 및 경쟁력 약화에 근본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다만, 경제 전반의 경쟁력 약화가 고임금에만 연유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견이 분분하다. '고비용 저효율'의 원인이 단순히 고임금에 연유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의 임금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사실이다.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는 뒤떨어지나 영국이나 미국 등과 견주어 약간 낮거나 일부는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의 경쟁상대인 대만, 홍콩, 싱가폴 등에 비해서는 상당수준 높은 것이 사실이고, 더군다나 최근 10년동안의 임금상승률은 세계 어느나라보다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저임금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유지해왔던 업종은 국제경쟁력을 상실할 수 밖에 없고, 운좋게 호황을 맛보았던 시절이 지나가고 더 이상의 고비용 구조를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오늘에 와서는 '고비용 저효율'을 수술하지 않고서는 기업을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임금이 높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높은 임금을 받고 걸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굳이 임금수준이 높다고 난리법썩을 떨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임금은 올라가는데도 효율은 오히려 떨어지는 저효율 구조가 문제인 것이다.

80년대 중반 이전의 노동착취에 대한 반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최근의 노동계 흐름은 직장을 소중히 여기거나 고임금에 맞게 고효율을 지향하기는 커녕 '어떻게 하면 더 뜯어내고 더 편하게 놀고 먹을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듯한 느낌을 지워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적대적인 노사관과 '놀고 먹자'주의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회사가 망하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나 하나 내 가족만 편하고 배부르면 된다'는 지극히 패배주의적인 노동자관이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장래를 예측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장기간 지속될 수 없음은 분명하고,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올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한 반응이 없었던 것은 노동계를 선도하고 있는 '노동귀족' '노동정치가' 등이 노동자를 볼모로 스스로의 욕구 채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스스로의 위치를 망각하고 운동가들의 손발로 전락해버린 일반 노동자들의 현상인식력 부족도 원인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삶의 자세는 1000달러에 불과하고 업무능력은 5000달러를 능가하지 못하는데도 1만달러 소득에, 2만달러 임금을 요구하고, 3만달러를 소비하는 상황에서는 건전한 노사관계나 회사발전을 기약할 수 없음은 당연할 것이다.

따라서 고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고, 무능력 및 무사안일로 비용을 축내는 '저효율'은 과감히 도려내야 하며, 그럼으로써 나머지의 건전한 평균인들을 보호할 시점에 온 것이다. 즉, '비효율'을 도려냄으로써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 소득수준을 제고시키는 건전한 경영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철저하고도 명쾌한 체질개선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시대적인 요구이면서 한국 산업계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제로, 그렇지 못할 경우 선진국의 문턱에도 다다르기 전에 후진대열로 추락하는 국가존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간파해야 하는 시점이다.

다만, '고비용 저효율'의 책임이 고임금에만 연유하지는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을 주지하고

자 한다.

1만달러 소득에, 2만달러 임금을 요구하고, 3만달러를 소비하는 상황에서는…

<화학저널 1996/9/23.30>